

성명 : 박정숙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4길 23-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 (CEO정기보험 2204무배당)

민원제목 : 저의 동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설계사의 기만에 의해 속아 가입하였기에 계약의 해지 및 원금반환을 신청합니다

임정윤설계사는 저에게 해당 보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자동차보험이라고 속여 해당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제목을 교묘하게 손으로 가려 자동차보험으로 착각시킨 후 서명을 받았고 저는 자동차보험이라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당보험을 가입하였고 2023년 3월 13일경 보험점검을 받다 해당 보험이 제 동의 없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물어보았던건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이었으나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정기보험

이었습니다. 저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데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알릴 의무를 고지해야 하는 점에대해 말한적도 없고 알릴 의무에 적혀있는 글씨 또한 제가 적은것이 아닙니다.

제 글씨체가 아닙니다.

임정윤설계사는 남편의 지인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저희회사의 법무 재무등을 봐주셨습니다.

임정윤설계사에게 남편또한 2021년부터 신한에서 200만원정도의 보험을 들었으며 회사법인차량의 보험또한 임정윤설계사가

다 맡아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22년 6-8월에는 회사 협업문제로 임정윤설계사가 회사에 내방하는일이 많았고 당시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남편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적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된 미팅이 이루어지지않았고 구두상의 설명만 간단히 들은뒤 이후 다시 약속을 잡자는

이야기만한채 이건으로 인한 만남을 가진적은 없었습니다.

2022년 6월9일 만기가넘은 자동차가 있다는것을 늦게알고 임정윤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진으로 법인카드를 보내

면서 일단 계약을 하었다고 들었습니다.

10일 사무실에 와 자동차보험건이라고 서류를 주어 서명을 하였고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을

떼어주었습니다. 서명란에 서명을 한뒤 바쁘시니 법인도장을 주면 본인이 찍겠다고하여 믿고 맡겼습니다.

그전에도 회사일을 봐주면서 법인카드 법인인감카드등을 건네는 경우가 종종있어 아무 의심없이 주었습니다.

법인자동차보험이 한화여서 해피콜이오면 받으셔서 대답만 하면 된다는 말에 해피콜이 왔을시 한화란 이름만

듣고 잘 듣지도 않은채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동이체로 금액이 나가고 있었으나 3-4개의 통장이 문자로 함께오다보니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남편의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못한점이 너무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임정윤설계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니 당시 직원연금에 대해 물은거에 대한 보험가입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당시 가입을 한다고 얘기하지도 서류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가 서명한 원본을 요구하자 제가 서명한

3장의 서류와 법원판결문을 주었습니다.

이후 통화내역에도 있듯이 저는 이보험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없고 나중에 임정윤설계사또한 이제와 속아 보험 가입한

저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녹음내용있음)

계약일은 22년 6월 13일이었으나 그 후 카톡 내용은 21일에 두분을 뵈고 설명을 드려야할것같아 연락드렸다며 금요일이나

토요일 편할때 보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캡처내용있음)

또한 계속 모든 서류를 주었다고 주장을 하나 저는 증권, 약관부분,계약서등 어떠한 서류도 일체 받지를 못하였을 뿐아니라

한화본사에서 조정나오신분께 3장복사본외 계약서류를 받아보니 제가 작성한것이나 서명한것은 어떠한 서류에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류작성되어있는걸 확인하니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술날짜와 저의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고 이런 보험가입이 이루어질수 있는걸까요 저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일을 알게된 그날 부터 매일매일 악몽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사람을 믿어 생겨버린 이런 큰일에 우울감도 심해지고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옆에서 자주와 혼자서 이많은일을 어떻게 하나며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전화받는 저를 위로해주던 임정윤설계사가 그런

절 이용했다는 생각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지 전 정말 어렵습니다.

임정윤설계사는 남편의 지인으로 다른지인에게 저희를 이제 보험납부가 하기싫어 이런일을 벌이는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본인은 피해자인척하고 있습니다.

하루 2-3시간 자며 서로 힘내라며 격려하던 부부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에게도 제대로 못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엄마인 저에게 정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설계사에게 속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나 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속여 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당하지 않게 가입된 보험에 들어간 원금을 반환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설계사 역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1. 주주명부 등기부등본을 법인 차량건에 필요하다고 2022년 6월 10일에 받아줌
2. 물어본것은 직원퇴직연금이었으나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대로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정기보험을 속여서 가입시킴
3. 21일 카톡내용엔 보험에 대해 설명해야하니 함께 만나자는 내용을 보냈음 이는 설명없이 본인의사로 이미 가입했다고 볼수 있음
4. 수술기록등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것이 청약서말고는 없으며 수술일은 본인도 오래되어 기억하지도 못하는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5. 녹음내용을 들어보면 임정윤설계사는 아직도 직원퇴직연금이라고 얘기를하고 있으며 수습하려 이제야 보험설명을 함
6. 증권, 약관부분, 계약서등 보험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받은게 없음
7. 알릴의무 및 고지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설계사가 대리고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킴
8. 본인은 계약시 항상 이름이 아닌 서명(사인)을 하는데 서명을 받지않고 본인이 이름을 기입한 것을 따라 그려 서명으로 위조함
9. 사업일이 바쁜것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약 절차 전부를 속이고 보험을 가입시킴
(손으로 청약서를 가리고 밑부분 서명란에 자동차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름을 쓰게하여 속임)
10. 보험의 취소와 납부한 보험료 전부 반환받기를 원합니다.